

민족생활을 반영한 《사가》시작품들의 주제사상적특징

김 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에서는 또한 인민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족생활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반영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김정일선집》 제5권 중보판 66페이지)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근면하고 슬기롭고 용감하며 의리가 깊은 인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족전통을 창조하여왔다.

우리 나라 중세 진보적문인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에 공감하고 그 생활을 반영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들가운데는 우리 문학사에 《사가》로 알려진 실학자시인들인 리덕무(1741—1793), 류득공(1748—?), 박제가(1750—1805), 리서구(1754—1825)도 있다.

이들은 18세기 유명한 실학자인 박연암의 문하에서 문학수업을 하면서 스승의 선진적인 실학사상과 미학리론에 공감하여 사회활동과 문학창작활동을 벌임으로써 중세 사실주의시문학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들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가 우리 민족고유의 생활을 적극 반영하고 그것을 긍정, 찬양하고있는 것이다.

민족생활을 반영한 《사가》시작품들의 주제사상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인정 많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도덕적품모와 슬기, 재능을 노래한것이다.

류득공의 《동봉정사에서 송지포와 함께 글을 읽으며》, 박제가의 《마을사람들이 술을 가지고와서 나를 전송하여주다》, 《목동》, 《륜회매》, 리덕무의 《새벽에 파주를 떠나며》, 《농사집》, 리서구의 《류하정가는 길에》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류득공은 시 《동봉정사에서 송지포와 함께 글을 읽으며》에서 순박하고 꾸밈없는 농민의 인정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들길로 농사군 한사람 걸어와
변변치 않다고 공손히 말하네
떡은 농사지은것, 닭은 병아리라네
글읽는 소리 듣고 가지고왔다네
부끄럽구나 덕 없는 내가
농사군의 선물을 받아먹다니
성인의 글을 대충 읽으면서도
마을의 새벽닭을 축내는구나
농사는 예로부터 장려해야 하는것
글 읽는것 정말로 고통스럽네

시인은 손님을 위해서 떡을 치고 새벽 닭을 잡는 농민의 따뜻한 인정미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한편 옛《성인》의 글을 읽는다는 자신도 농군의 인정미에 마음이 끌려 공허한 책읽기를 그만두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농사일에 뛰어들려는 생각도 표명하였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하여 량반선비들에 비한 근로인민들의 도덕적우월성을 강조하였으며 인민들의 농사일이 량반선비들의 글공부보다도 신성한것이라고 노래하였다.

시 《마을사람들이 술을 가지고와서 나를 전송하여주다》에서 박제는 농촌마을에서 이들을 머물며 《나그네의 시름이 멎고 기쁨으로 가득찬》 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도 편해지고 좁은 속도 너그러워진다고 하였다.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 자기의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읊고있다.

버석버석 나무일에 흰서리 내렸고
어슴프레 오막살이 달빛이 싸늘해라
이곳을 떠나면 그리움이 사무쳐
팔각지, 벼포기도 자주 꿈에 보이리

시에서 《버석버석 나무앞에 흰서리 내렸고/ 어슴프레 오막살이 달빛 싸늘해라》라는 시적표사는 인정미 많은 농민들과 헤여져야 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아쉬우면서도 쓸쓸한 심정을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시 《농사집》에서 리덕무는 푸수하면서도 순박한 농촌사람들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착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면서 인정 많고 순후한 농촌의 풍속을 긍정하고있다.

《사가》는 인민들의 고상한 인정세계를 노래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슬기와 재능에 대해서도 찬양하고있다.

박제가는 시 《목동》에서 열살나는 애 어린 소년의 지혜로운 모습을 방불하게 그려내고있다.

비바람 무릅쓰고 나무하고 소먹이며
열살나는 목동은 들판에서 자라나네
화살에 실을 매여 기러기도 쏘아잡고
개울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도 잡아내네

비록 열살밖에 안되지만 들판에서 자라면서 근면성과 지혜, 생활력을 키워나가는 소년의 생활모습에 대한 시적형상은 농촌사람들의 근면성과 슬기에 대한 공감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시 《통진에서》 역시 천민들의 지혜와 슬기를 찬양하고있는 작품이다. 시에서는 《삿갓 쓴 저 배사공 천기를 잘 봐/ 다음날 바람 불것도 알아맞히네/ 굽슬굽슬 텃석부리 씻을수록 거매지고/ 거무죽죽 불은 취해도 불지 않네》라고 노래하면서 천기를 잘보는 배사공에 대한 친근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도롱이우에 강물이 얼른거릴 때/ 물소리에 어울려 코를 골기도 하네》라는 시적표현을 통하여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고 물과 함께 한생을 같이해온 배사공에 대한 정서적인 표상을 강하게 주고있다. 작품에서는 근면하고 소박한 인민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

람들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리덕무, 류득공, 리서구도 백성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락천적으로 시화하여 노래하였다.

숲그림자 이미 쓸쓸해지고
강기슭은 한층 황량한데
길가는 나그네 밀물을 타서
나무숲 저편으로 쪽배 한척 띄워가네

이 시는 리서구의 《류하정가는 길에》이다. 시인은 어슬어슬한 강가의 정경을 노래하면서 어두운 속에서도 밀떨물의 조화를 깨달은 나그네(천민)의 기지있는 행동을 하나의 풍경화로 그려내고있다.

《사가》의 시들가운데는 이외에도 류득공의 《농가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와 같이 농민들의 락천적인 생활정서를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시에서는 《관술불 다 타도록 기운이 뻔 질러서/ 떠들고 웃는 소리 온 집안이 떠나가네/ 막걸리 석잔에 범이라도 잡을 기세/ 숲바람에 삿갓이 너풀거리네》라고 농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느끼는 감회를 노래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정서를 펼쳐보여주고 있다. 시에서는 농민들의 성격적면모를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범이라도 잡을 기세》, 《삿갓이 너풀거리네》와 같은 룰동적이면서도 호방한 표현으로 봉건적인 압제와 가난속에서도 굳센 기개를 굽힘이 없이 살아가는 농민들의 생활모습을 방불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사가》의 시들은 메마른 개념의 서술이 아니라 깊은 시적사색에 기초하고있고 생활속에서 탐구된 시어들을 구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채로운 정서적감흥을 준다.

민족생활을 노래한 《사가》시작품들의 주제사상적특징은 다음으로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근로인민대중의 로동생활세태를 깊은 애착을 가지고 진실하게 노래한것이다.

리덕무의 《농사집에서 읊노라》, 《비오는 날 배안에서 부벽루 바라보며》, 박제가의 《통진에서》, 《륜회매》 등은 인민들의 근면한 로동생활세태를 찬양한 작품들이다.

리덕무의 시 《농사집에서 읊노라》에서는 농촌의 가는 곳마다에서 맞다들리게 되는 인민들의 근면한 로동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시인 자신의 걱정과 희열을 토로하고 있다.

남쪽으로 가는 길 머무른 집들마다
마음은 가난하지 않구나
한낮엔 베짜고 새벽엔 방아찧기
일마다 보람차보이네
...

시인은 농사집아낙네들의 베짜기와 방아찧기를 비롯한 로동생활을 보람있는것으로 여기고있으며 시의 뒤부분에서 로동의 참된 희열과 보람을 맛보기 위해 로동에 뛰어들려는 자기 의사도 내비치고있다.

리덕무는 《비오는 날 배안에서 부벽루 바라보며》에서 《푸르른 룡라도 보리밭이 부럽구나/ 농사군들 잘도 가꾸었네》라고 하면서 농민들의 근면한 로동생활에 대한 찬탄과 그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하였다.

박제가 역시 시 《통진에서》에서 소박하고 근면한 농민들의 생활을 긍정하고 레찬하였다.

두메산골에 집을 사련다
호화스런 풍속이야 아랑곳있으랴
시와 레절은 소박하면 더 좋으리
누에치고 길쌈하긴 아낙네가 스승일세
헛된 이름이야 꿈엔들 생각하랴
힘들여 밭가는데 진리가 있구나

시인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스승이라고 찬양하면서 힘들여 밭갈고 누에치고 길쌈하는 로동생활속에 인간의 아름다운 진미가 있고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시 《륜회매》에서는 밀을 빚

어 매화꽃과 같은 기호품을 만들어내는 인민들의 재능과 로동의 열매에 대한 찬탄의 감정을 노래하였다.

《사가》는 농촌에서 소매걸고 농사를 지은것은 아니였지만 농민들의 생활을 마음속으로 동경하고있었다. 더우기 이들은 실학파시인들이였던것만큼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농업로동의 지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이들의 시는 농사일을 직접 하는 농민의 시점에서 농촌의 로동생활을 략관적으로 대하는 생활긍정적인 정서가 기본을 이루고있다.

민족생활을 반영한 《사가》시작품들의 주제사상적특징은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풍속세태생활을 노래한것이다.

이들은 우선 해마다 년례행사로 진행되는 우리 나라 민속놀이와 민속명절에 대한 환희의 감정과 긍지를 노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시 《봄》에서 박제가는 다음과 같이 읊고있다.

그네 타고 하늘을 한바탕 댕다 차니
바람 먹은 두 소매 활동인양 둥글구나
높이를 다투느라 치마 터질줄 모르니
수놓은 붉은 버선 신발코가 드러나네

시에서 시인은 녀인들의 그네타는 즐거움을 유모아적인 시어로 특색있게 노래하였다. 안방에서 뛰쳐나와 세상을 활보하고 싶은 녀인들의 마음이 그네타기에서 보다 승화되어 푸른 하늘을 가르고 구름우에 솟구쳐 날으고싶은 소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감정의 밑바탕에는 민속놀이에 대한 시인의 애착심과 긍지가 깔려있다.

시인은 그네타기와 같이 하늘을 날아보려는 인간의 소망이 반영된 연 띄우기 놀이에 대해서도 노래하고있다.

바람은 휘휘
대추나무 흔들흔들
겨울철 성변두리엔 교목이 우뚝우뚝

들은 탁 트이고 하늘은 까마득
둘러보니 산가엔 흰눈만이 아스라한데
연꼬리는 해를 등지고 구름우로 나뿔기네
(《종이연노래》)

이 시는 하늘높이 나는 연에 의탁하여 구름우의 연처럼 훨훨 날아보고싶은 자기의 강렬한 충동을 노래하였다. 한편 박제가의 다른 시 《종이연》에서는 이와 반대되게 사회현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바람이 약해 제대로 못날리는 연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류득공의 《정월보름날 취해서 읊노라》, 리덕무의 《륙각봉꽃놀이》 등의 작품들에서도 정월대보름을 비롯한 명절의 풍경과 민속놀이의 즐거움을 노래하고있다.

시 《정월보름날 취해서 읊노라》에서는 명절의 풍경, 달맞이와 연띠우기, 달밝은 밤에 인생의 온갖 속박과 피로움을 잊고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움 등 자연과 사람이 서로 융합된 정월대보름날의 풍치가 한눈에 안겨온다.

《사가》는 한편 우리 인민들의 인정세태생활을 긍정하고 찬양한 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리덕무의 시 《배신월》, 《채련곡》, 《보슬비》, 류득공의 《평양》, 박제가의 《봄》과 같은 작품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리덕무의 《배신월》, 《보슬비》와 같은 작품들은 녀성들의 미묘한 애정세계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초저녁 달 맞으러 란간에 기대섰는데
석류치마 벽돌치며 아장아장 걸어오네
꽃속에서도 란군님을 몰래 보기가 두려운지
겨우 절반 절했는데 절반은 어찌할가
(《배신월》)

시는 총각에게 끌리운 처녀의 미묘한 심정 즉 보고싶으나 차마 보지 못하는, 말

하기 어려운 심정을 잘 표현하였다.

리덕무의 이 시는 애정의 순결성을 노래하면서 미묘하고도 애뜻한 내면심리세계를 매우 진실하고 방불하게 묘사하였다.

시 《채련곡》에서는 《콩대끝이 가을바람에 술술 흔들리니/ 장사배가 돌아올 팔월이로구나/ 상사곡 한곡을 련꽃잎에 썼는데/ 장따라 내려간 님 어찌 알리오》라고 노래하면서 멀리 장사길 떠난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안해의 간절한 심정을 시에 담았다.

한편 시 《보슬비》에서는 녀인의 미묘한 심리와 감정의 미세한 파동까지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석류꽃은 울긋불긋 붉게 피어나고
누런 수탉 지붕에서 점심때를 알리누나
속상해라 보슬비는 님오는 날 내리니
혹시나 시내물이 불어나지나 않을가

봄은 따뜻하고 꽃이 피는 계절인데 보슬비를 맞으며 집에 돌아올 사랑하는 란군님을 생각하니 녀인의 마음 부풀고 알뜰게도 내리는 보슬비에 시내물이 불어나지나 않을가 은근히 걱정도 앞선다.

리덕무의 시가 주로 녀성의 시점에서 녀성의 감정과 심리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면 류득공, 박제가의 시는 남성의 시점에서 남성의 감정과 심리변화를 표현한것이 특징이다.

《사가》가 민족생활을 주제로 하여 작품창작을 벌린것은 그들이 당시의 현실에 눈을 돌리고 《실사구시》리념을 구현하여 시를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였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사가》는 민족생활을 진실하면서도 꾸밈없는 시적형상을 통하여 펼쳐보여줌으로써 중세말기 우리 나라 시문학의 사실주의적성격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